



초등학생들의 고싸움 시연 광주시교육청 지정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인 대촌중앙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운영보고회를 열고 고싸움 시연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촌중앙초를 비롯한 영천초, 용주초, 월봉초 등 4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추진

35개국 400여도시 회원
시, 지난달 가입서 제출

광주시가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중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IAEC 본부를 방문해 가입서를 제출한 데 이어 상임이사 도시인 포르투갈 리스본과 스페인 그라노예노 시청을 방문해 광주를 홍보했다. IAEC 가입은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 교육

협력사업 및 교류를 통해 전통적 교육도시인 광주가 일류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가입이 확정되면 세계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회원 도시간 협력을 통해 시민의 교육적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서포터 데이터뱅크(BIDK)를 통해 각 도시의 교육 프로그램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

러 유네스코(UNESC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얻기가 쉬워지며 회원도시 지자체와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기초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1994년에 창립한 이 연합회는 유럽 교육선진도시들을 중심으로 35개국 400여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한국에서는 창원과 순천시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관광기념품 전시회

전국 공모전 수상작
오늘부터 DJ센터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1일부터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 전시회에는 16개 시·도별로 예선대회를 거쳐 뽑힌 입상작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수상작 110점을 비롯 모두 5천여점의 기념품이 선보인다.

11개국 200여점의 해외 우수 관광기념품을 전시하는 특별전도 함께 열려 국내 관광기념품과 비교 관찰할 수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관람객이 직접 기념작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17개의 체험존과 어린이용이웃 패션쇼, 밸리댄스, 비보이공연 등 이 그것이다.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관람객이 직접 기념작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17개의 체험존과 어린이용이웃 패션쇼, 밸리댄스, 비보이공연 등 이 그것이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는 전자현악그룹인 'J일렉트리아'와 비보이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외국관광기념품 특별전을 축하하기 위해 '미녀들의 수다' 해외 출연진도 함께 참석해 전시회를 빛낼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기자특보

2008년은 조선대에게 뜻깊은 해다. '1·8학생'으로 불리는 1988년 조선대 학원 민

이날 오전 9시30분이 되자 조선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500여명은 정문 옆

설립기념탑에 모여 '교과부 임시이사 파견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다. 30분 후에는 500m 떨어진 장미원 정문에서 '동문의 손 쥘 열물 제막식'이, 다시 30분 후에는 서석홀에서 개교 기념식이 열렸다.

우울한 개교기념일은 정이사 체제 추진을 둘러싼 교과부가 최근 임시이사

우울한 생일 맞은 조선대

했지만 임시이사 체제는 조선대에 하나의 축복이었다.



정상필

<사회부 기자>

조선대 구성원들은 올 초 임시이사 체제 20년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이사를 뽑아 이들에게 학교 운영을 맡기는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법인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이나 재정 운용 등 그 동안 임시이사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굵직한 사업들이 많았기에 정이사 체제에 거는 기대는 더 컸다.

이렇게 뜻깊은 2008년, 조선대는 우울한 생일을 맞았다. 조선대 개교 62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달 29일 오전, 성적이 판이한 3개 행사가 잇따라 열린 조선대 교정의 풍경은 가을비 흩날린 거룩한 하늘만큼이나 착잡했다.

선임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는 소식에서 비롯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교과부가 광주시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임시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이다.

그렇다고 조선대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중에는 '조선대 임의이사 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교과부에 임시이사 선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선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camus@kwangju.co.kr

'올돌목 거북배' 입학한 울릉도 도동항

바다 위 위용 드러내자 1천여명 환호

관광객·주민들 흥겨운 공연속 독도 수호 출정식

역사적인 독도 항해를 위해 지난달 30일 경북 울릉도에 도착한 '올돌목 거북배'가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거북배' 도착과 함께 '독도 수호 출정식'이 열린 울릉도 도동항은 '독도 수호' 의지로 가득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백이 담긴 '거북배'가 지난달 30일 오후 기관사와 갑판장 등 선원 4명을 태우고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거북선 형상의 '거북배'가 먼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기다리던 1천명의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또 일부 관광객들은 도동항에 접안 중인 '거북배'에 오르고 싶다는 뜻을 표하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독도 수호 출정식'이 열린 도동항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관광객들은 강강술래 공연팀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원형을 그리면서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흥을 돋우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이순신 복장을 한 공연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관광객 박순영(여·54·경북 포항시)씨는 "거북선 모형과 거의 비슷하다. '거북배'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거북배"를 타고 독도에 간다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배를 타고 가서 일본을 깜짝 놀래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 김성규(45·대구시 달서

구)씨는 "거북배"를 보니 이 충무공이 되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독도에서 이 충무공의 기백을 한껏 뽐내고 오길 바란다"며 "울릉도에 관광왔다가 멋진 공연을 덤으로 보고가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이신(57·경북 포항시)씨도 "강강술래 공연을 울릉도에서 보니 전율과 함께 민족의 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공연을 독도에 가서 한다고 생각하니 한민족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상악화 때문에 어렵사리 울릉도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니 힘들게 온 보람이 있다"며 "이들의 염원을 담아 예정대로 독도를 방문,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오겠다"고 말했다.

/울릉도=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2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법원경매 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앞)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감평가	최저가
홍성동 무등파크	33평 1억1천5백	8천	2억9천5백
호성동 모이타워	46평 1억7천7백	1억1천5백	2억9천5백
진남동 중흥	33평 9천5백	6천650	2억9천5백
대곡동 삼익	32평 8천1백	5천670	2억9천5백
연지 새한	24평 4천9백	3천220	2억9천5백
학동 새세라비	45 1억1천	1억1천	2억9천5백
도산동 호진	24 5천3백	3천710	2억9천5백
문흥동 대우에든	33 6천2백	4천340	2억9천5백
주월동 현대	31 9천3백	6천510	2억9천5백
월곡동 건영	36 1억1천	7천700	2억9천5백
중흥동 라인	32 8천9백	6천230	2억9천5백
▶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신안동	61/40	1억4천27백	1억1천7백
운남동	60/62	2억7천	1억9백
유동	94/144	2억8천5백	1억8천5백
우산동	188/193	10억8천	7억4천
누문동	40/34	4억3천5백	3억5백
학동모텔	110/259	8억1천8백	4억5천8백
월곡모텔	109/259	9억5천	5억3천
중흥동	117/296	9억8천5백	5억5천2백
▶ 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월산동	66/30	1억4천2백	7천9백
중흥동	48/52	1억1천9백	8천3백
소촌동	57/55	8천8백	4천9백
운남동	41/58	1억4천950	1억5백
오차동	43/50	1억3천9백	9천84
두암동	39/41	8천82	4천73
중흥동	34/17	6천160	2천760
▶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신항동	전627평	4억9천	2억2천3백
장성동	전448평	7천8백	4천4백
옥동공장	636/300	5억8천8백	4억4천5백
나주노안	대107평	1천130	6백34

초유가시대 ~! 기름 한드럼에 30~40만원~!!

저탄소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 난방, 온수 근심걱정 해결

홈페이지 : www.돌고래보일러.kr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용 시설에 최적합.

설치장소(난방/온수)

- 급린생활시설·식당 등 상업용시설
- 숙박시설·모텔·펜션·콘도
- 교육·종교시설·미용실·시나스·스포츠시설
- 공업시설·기숙사, 공장·냉방 및 온수시설
- 복지시설·요양원, 안도원, 회관

제품의 특징

- 순간 가열방식과 저탄소방식의 장점을 혼합하여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효율성과 경제성
- 타제품에 비해 적은 전력량으로 많은 난방공간을 활용
- 전자동 온도조절의 편리함과 5중 안전장치 내장
- 유레탄 단열처리로 뛰어난 보온성
- 순간 가열식과 축열식을 접목하여 열난방기 사용
- 기존 순간식 보일러 단점 보완

★ 청정연료인 전기에너지 사용으로 유가 인상 및 유류가스 걱정이 없으며 긴 수명과 낮은 고장 확률이 있음

특허등록번호 0751485호
국제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특허출원 10-2007-0082-632

무로 상담전화 **080-909-0088**

기름값대비 60~80% 절감효과
지금 즉시 신청 하십시오/시범주택 보급가격

MODEL	소비전력 (KW/h)	표준난방(평)	※(비·전·기·비·현·행·업·업·회·합·소·비·자·기·적·가·격)
ED50-1.5KW	1.5KW	18㎡ (5~7)	₩248만원
ED50-3KW	3KW	35㎡ (10~12)	₩350만원
ED100-6KW	6KW	70㎡ (20~25)	₩418만원
ED210-10KW	10KW	100㎡ (30~35)	₩475만원
ED210-16KW	16KW	140㎡ (45~50)	₩538만원
ED210-20KW	20KW	185㎡ (55~60)	₩598만원
ED430-30KW	30KW	270㎡ (80~90)	₩679만원
ED430-38KW	38KW	340㎡ (100~120)	₩776만원

(설치비 전액 3년간 분할)

(별첨 AS)
대우일렉서비스 DC
서비스 문의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88-0062

언제 어디서나 Yes!!
가족처럼 소중한 고객을 위해 감동서비스

생산공장 - 전문가가 직접 완벽 시공 - 설치고객